

“빅데이터담당 중심으로 조직 운영을”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데이터 기반 행정 효율 높이기 위해… 정책설계·조직 관리 전략 등 대안 제시

데이터 기반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신설된 ‘빅데이터담당’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 남궁상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를 위한 진단: 유형 비교와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빅데이터담당을 신설한 전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에 인식조사 분석과 데이터 유형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설계 전략 △조직 관리 전략 △인사 관리 전략 △조직문화 정착 전략 등 4가지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대안을 내놴.

먼저, ‘정책 설계 전략’의 경우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데이터를 정책 주기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석하는 로드맵을 설계하고, 정성적 속성을 가진 정책과

제에 대한 지표화 및 수집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관리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확립하고 빅데이터담당과 미래교육정책연구소의 관계 설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아가 정책 중심의 메타데이터 및 표준화 체계를 만들고, 협력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

다음으로 ‘인사 관리 전략’ 측면에서 부서별 데이터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맞춤형·평가연계형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조직 문화 정착 전략’ 측면에서는 데이터 기반 성과보고 체계를 정착하고, 성과 분석 및 환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궁상운 소장은 “데이터 기반 고도화를 위한 4가지 관점의 정책적 제안은 모두 전략적 기획이라는 큰 틀에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경쟁률 17.1대 1

전북교육청, 교육행정직 등 총 71명 선발에 1214명 접수

‘제1회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71명 선발에 총 1,214명이 응시해 평균경쟁률이 17.1대 1을 기록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행정직 일반은 21명 선발에 780명이 지원해 37.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3명 선발에 21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명 선발에 18명이 지원해 각각 7.0대 1, 18.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사서직은 4명 선발에 58명(14.5대 1), 공업 일반직계는 2명 선발에 18명(9.0대 1), 공업 일반전기는 2명 선발에 19명(9.5대 1), 시설 일반토목은 3명 모집에 34명(11.3대 1), 시설 건축은 3명 모집에 33명(11.0대 1)이 응시했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시설관리 일반은 14명 선발에 98명(7.0대 1), 운전 일반은 14명 선발에 134명(9.6대 1), 운전 보훈부 추천은 2명 선발에 1명(0.5대 1)이 지원했다.

필기시험 장소는 5월 26일 전북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필기시험은 6월 21일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1일 발표된다.

자세한 접수 현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te.go.kr)을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수소에너지고, 지역사회와 인재양성 협약 상징공간 조성

수소에너지고등학교(교장 송현진)는 지역의 대표 기업·대학·공공기관과 맺은 협약을 기념해 학교 입구에 협약 기관들의 깃발을 설치하고, 각 협약을 액자로 전시하는 상징공간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협약형 특성화고에 도전하는 수소에너지고는 그동안 △우석대학교 △전북대학교 △한주군청 △현대자동차 △미원상사(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주식회사 한솔케미칼 △(주)정석케미칼 △일진하이솔투스(주) △주식회사 비나텍 △주식회사 LS엠티론 △KCC 등 국내 대표 수소 및 첨단화학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수소에너지고와 함께 수소 및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뜻을 모으고, 다양한 교육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에 협력했다.

이를 위한 상징공간 조성은 학생들에게 협약의 의미를 되새기고, 등하foot길 마주하는 협약기관 깃발을 보여 자긍심과 진로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중국 산둥성 자매대학 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 나섰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전주대, 중국 유학생 유치 본격화… 산둥성 자매대학 방문

박진배 총장 “양국 인재양성 위한 성장 플랫폼 구축할 것”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중국 산둥성 자매대학 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심영국 국제교류원장, 이동근 국제교류지원실장 등 전주대 방문단은 21~24일 4일간 산둥성의 성시건설직업대학, 태산과기대학, 항성과기대학을 찾아 교환학생 프로그램 및 신·편입

생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산둥성시건설직업대학은 2020년 중의합작반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이후 산업디자인학과와 협력해 매년 70여 명의 학생을 모집, 활발한 교환학생 및 편입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태산과기대학은 전주대가 한국 대학 협력의 문을 처음 연 대학으로, 이번 방문에서는 교환학생 파견

확대 및 유학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항성과기대학은 2020년 ‘전주단과대학’을 설립해 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 명의 학생이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이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와 중국 자매대학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전주대가 기틀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22일 대학본관에서 ㈜에티버스 및 VANTIQ와 AI 기반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전주대, 에티버스·VANTIQ와 협약 체결… 공동 연구 등 추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2일 대학본관에서 ㈜에티버스 및 VANTIQ와 AI 기반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주대학교 이해원 산학부총장, ㈜에티버스 김준성 전무, VANTIQ Marty Sprinzen CEO, Miguel Nhuch CRO와 이형근 한국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반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상호 협력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안전 체계 구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AI 기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AI 및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에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에티버스와 VANTIQ는 최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국내 산업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의 시너지 창출 및 지역 맞춤형 혁신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뷰티디자인과 효사랑전주요양병원과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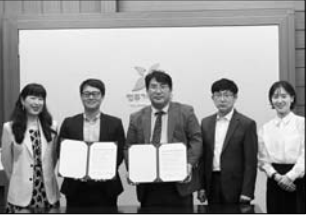
전주기전대학교 뷰티디자인과는 23일 종합행정동 회의실에서 효사랑전주요양병원(병원장 박진상)과 산학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덕현 산학협력처장과 박진상 병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재 양성과 기술 교육 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 개발 및 실무 교육 강화를 통해 우수한 기술 인력 양성과 전문 교육을 실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전주기전대학 뷰티디자인과는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헤어커트, 네일케어, 메이크업(사진 촬영) 등의 뷰티 봉사를 지원하고,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은 전주기전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취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과학기술 진흥 공로 인정

전북대 정광운 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받아
기능성 고분자·디스플레이 소재 기술 혁신 앞장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는 (고분자나노공학과)가 최근 열린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행사에서 과학기술진흥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최근엔 액정가교(Liquid Crystal Networks) 소재의 연구분야에서 이방성 액정단량체를 설계 및 합성하고, 분자자기조립을 다양한 길이단위에서 정교하게 제어함으로써 물질의 성질을 극대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차원구조가 제어된 액정가교소재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차세대 에너지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분야에 응용 가능 하다.

또한 미공군연구소 (AFRL)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같은 국제 기관과 협업체 국제적으로도 연구역량을 넓혀가고 있다.

정광운 교수는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대한민국 고분자공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전북대학교 분자공학실험실 대학원생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수업혁신 위한 첫 발 내딛다

올해 IB 연구회 30팀 운영… 수업·평가 개선 핵심과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IB 프로그램의 이해 제고를 위한 ‘IB 연구회’를 운영키로 했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유·초·중·고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구성된 30팀의 IB 연구회를 선발, 지원한다고 밝혔다.

IB 연구회는 IB 프로그램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연구와 공동실천을 통해 수업혁신을 실현하는 전북의 교육혁신공동체다.

이는 단순한 연수 운영이나 정보 나눔을 넘어 IB 교육 철학에 기반한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 설계, 체계성을 갖춘 평가 자료 개발, 사고전략 개발 및 활용 등 실제 교실 내에서 실행가능한 자료 개발과 공유가 주된 목표다.

특히 IB 연구회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교육혁신공동체의 날’ 부스 참여를 비롯해 자료 전시와 토론회, 수업 나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화하는 데도 힘을 계획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IB 연구회는 교사의 성장과 교실의 변화를 동시에 이끄는 실천의 장”이라며 “이러한 실천이 수업의 질을 높이고, 전북교육이 지향하는 수업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JBNU지역발전연구원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맞손’

JBNU지역발전연구원, 전북경진원과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JBNU지역발전연구원(원장 권덕철)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덕철 원장과 윤여봉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학연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 성장 지원 및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공동 활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 지역 특화산업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 발굴, 기업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J-Doctor’ 자문제도 운영 협력, 그리고 산학연관 연

계를 통한 기술·경영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됐다.

권덕철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대학교의 연구역량과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산업에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화산업 육성은 물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JBNU지역발전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여봉 원장은 “전북대학교와의 협력은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